

제 27호
201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회보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의 효과 - 이준동 교수
- 법정교수회의 출범과 향후 과제 - 조정곤 교수
- 위기의 대학, 절처구생(絶處求生)하기 - 신승춘 교수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201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 04 2015 교수회보 발/간/사
- 06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의 효과 - 이준동 교수
- 09 법정교수회의 출범과 향후 과제 - 조정곤 교수
- 13 위기의 대학, 절처구생(絶處求生)하기 - 신승준 교수
- 20 신입교수 소개
- 24 정년퇴임교수 소개
- 30 교수 동정
- 32 교수회 활동
- 40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44 평의원회 명단



저희 교수회는 2015년 8월 27일 학칙에 관련 규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9월 18일 법정 교수회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회는 국립대학교들 중 가장 늦게 학칙화가 이루어졌는데, 출범하자마자 총장선거가 임박하여 바로 이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즉, 교수회에 할당된 5명의 총장임용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25명의 학외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21일 총장 선거일 일주일전까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대상자의 추천을 완료하기 위해서 교수회는 2번의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추천 위원의 선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원주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 및 교육청의 교육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등 출범 하자마자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시절 우리 대학에서는 항상 총장 선거 후유증을 겪어 온 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수회에서는 평의원회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서 처음 치른 간접선거 방식의 총장선거 과정에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교수회는 협의의 관점에서는 교수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교수들의 대의 기구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대학 보직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그리고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을 돌이켜 보건데 현 집행부가 총장대행체제라 하더라도 교수회에 대한 시각 및 이에 따른 행정 행위가 과거 비법정 교수회때와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 퇴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즉, 고등교육법 상 관련 규정의 부재 및 감사 지적 사항 운운하며 교수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요청하지 않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5 교수회보 발/간/사

있고, 교수회 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한 발 더 나아가 학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들의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학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대학교에서의 총장은 보직임명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교직원의 임용 및 해임권 등 가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행정기관이라 한다면 교수회가 최소한의 입법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학교 행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수회가 최종 심의기구라 하더라도 대학의 최종 의사 결정 및 집행 권한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교수회마저 학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다면 총장의 독선적 행정과 권력남용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구는 없으며, 아울러 학칙상의 교수회라는 명분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의 미래는 일차적으로 교수들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희생 및 노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 비효율적인 행정, 집단이기주의 및 무책임한 자세 등 구태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교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절대적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도기적 현 집행부를 상대로 교수회가 학교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쪼록 차기 집행부는 학칙을 준수하여 법정 기구로서의 교수회를 인정하는 근본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교수회장 이 근 택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의 효과

멀티미디어 공학과 이 준 동

우리학교에서 연구한 강원도 통합대학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5년 고교 졸업자수는 약 68만 명, 대학 입학정원은 59만 명 정도 된다. 아직 입학정원이 졸업자수 보다 많아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80%만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는 오히려 약 4만 명 정도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2025년이 되어 입학정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졸업자 수는 약 45만 명, 입학정원이 59만 명이 되어 약 14만 명이 부족하고,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는 약 23만 명이 부족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2020년까지 2주기에 걸쳐 9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입학정원의 감소라는 불가항력의 외부 여건에서 2007년 통합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의 통합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통합 당시부터 많은 반대의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사실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수회에서 연구했던 강원도 통합 대학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본인의 환경 상 너무 원주캠퍼스 위주라고 생각되어지면 학교 발전을 생각하는 내부의 소수의견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첫 째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교명이다.

우리 대학은 2007년도에 원주대학교와 강릉대학교가 통합하여 임시로 강릉대학교란 이름을 사용하였고, 2009년에 교명을 변경하여 강릉원주대학교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모든 교수의 설문문을 통하여 이름을 결정하였고, 사실 본인도 강릉원주대학교란 이름을 선택했었다. 강릉과 원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이름 중에 강원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강릉원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릉과 원주 두 지역에서는 모두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작년에 교수회 일로 강릉 터미널에 도착하면 자주 택시를 이용하여 학교에 들어갔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설명할 때 나를 약간의 머리를 굴려 “강릉대학교”라고 이야기 하면 택시기사는 꼭 원주대학교요? 하고 되묻곤 했다. 강릉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원주대학교란 의미로, 원주에서는 강릉대학교란 의미로 사용되어 양 지역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름이 된 것 같다.

둘째는 원주 캠퍼스의 변화이다. 통합대학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주캠퍼스는 2007년 156,494㎡에서 2014년 172,360㎡로 약 10% 정도 토지가 늘어났지만, 교수 수에서는 2008년 94명에서 2014년 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입학 정원도 561명에서 516명으로 감소하였다. 통합 후 새로운 건물이 생겨나고,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되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은 줄어들어 캠퍼스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2013년 7월 29일에 있었던 원주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역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2013년 7월 30일 천지일보의 내용이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2월 학사구조개편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는 반드시 원주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원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주지역 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부 지역의 여론만을 수용한 듯한 개편안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릉원주대학교 측의 각성을 촉구하며, 통합당시 계획대로 공과대학을 원주로 이전할 것과, 지역 특성화 산업인 ‘한지(韓紙)산업, 문화 예술의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주에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를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세 째는 원주 캠퍼스의 복지이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수들의 비좁은 식당 문제, 학생들의 교양과목 수강의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원주 캠퍼스 직원들의 평가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통합 이후 강릉 캠퍼스 학생들의 복지 상태와 원주 캠퍼스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 상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으며, 직원들도 매년 평가에서 소외되는 감정을 느낀다고 들었다. 또한, 통합 이후 원주 캠퍼스는 부총장의 자리를 신설했지만, 부총장의 이름 앞에 “대외협력”이라는 말을 붙여 허울성 부총장으로 만들었다.

우리학교는 2016년 새로운 총장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 모두 밝은 미래보다는 어둡고 힘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약하나마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의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일반교수의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우선,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강릉원주대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은 원주캠퍼스를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원주캠퍼스가 있는 원주가 수도권과 가깝고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입학정원 채우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강릉대학교가 조그만 전문대학인 원주대학과 통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강릉 하나, 원주 하나와 같은 방식으로는 뒤져있는 원주캠퍼스 발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원주캠퍼스가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또한, 원주캠퍼스의 부총장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캠퍼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불평등의 해소, 학생들이 느끼는 복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전에도 시도했던 교명의 변경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강원대와 통합도 같이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강원대와 통합을 하지는 것이 아니고, 강원대와 통합의 조건을 검토하여 전체 교직원들이 통합이 이로운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강릉에서도 원주에서도 가장 구박받지 않을 이름이 강원대학교이고, 지금이라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밝아오는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총장님은 임기동안 많은 교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릉과 원주 두 도시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이 양쪽 지역에서 모두 축복을 받는 날이 우리 학교가 진정한 통합의 효과를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법정교수회의 출범과 향후 과제

무역학과 조 정 곤 교수

우포늪의 ‘뉴트리아’와 대학가에서의 ‘사이비정책’이 지닌 공통점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는 것이다. 뉴트리아는 1985년 모피 생산을 위해 남미로부터 농가 사육용으로 도입되었으나 혐오스러운 외모 등으로 모피 값이 급락하자 자연에 방사됐다. 그러나 인간 외에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뛰어난 뉴트리아가 낙동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농촌을 풍요롭게 한다며 도입한 뉴트리아(일명 ‘괴물쥐’)가 오히려 우포늪의 생태계를 파괴한 원흉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대학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학을 선진화시킨다며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대학정책은 괴물쥐와 다를이 없다. 대학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정책은 ‘대학판 뉴트리아’가 되어 대학의 생태계를 뿌리째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창의력을 갉아먹고 연구시간마저 방해하는 각종 통제가 남발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보면 사이비 대학전문가들의 간섭행위로 인해 대학의 본질이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수회는 철폐해야 할 악성정책들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교수들과 관련한 사안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즉, 황당무계한 로또방식의 총장선출규정 폐지, 교수회와 교무회의 역할·위상 정립, 그리고 교수급여삭감에 따른 책임강의시수의 축소조정이 그것이다.

■ 황당무계한 로또방식의 총장선출규정 폐지

대학교의 총장선출규정은 후세에 물려 줄만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인가, 아니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흉물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로 지칭되는 대학교수들이 만든 제도이니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사회인들이 따라서 흉내 내고, 대통령선출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관찮을 만큼 떳떳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되묻고 바로잡아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직접 체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총장선출방식의 황당무계함이다. 총장임용후보자의 간접선출제도는 추천위원의 중립성담보가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은 추천위원의 중립성이 결코 담보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추천위원에 대한 기피, 제적, 회피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현행 추천위원회규정은 공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다시 이런 규정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는 주체가 된다면 민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법치민주국가에서는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복권당첨 방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 대학의 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 현행 총장선출규정은 식물로 치면 근간이 되는 뿌리가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제도이므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과제이다.

■ 교수회와 교무회의 역할 · 위상 정립

우리 대학교의 교수회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칙에서 규정하고 인정한 법정교수회로 되었다. 교수회 관련 학칙이 시간에 쫓겨 급히 개정되느라 교수회장과 총장, 그리고 교무위원 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교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교수회장의 교무회의 정례적 참석은 바람직한 것인가의 이슈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교무회의에 교수회장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교무위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교수들이 반발할 경우, 교무회의에 참석했던 교수회장은 그 사안에 대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교수회장의 교무회의 참석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교수회를 약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교수회장이 교무회의 결정에 참여할 경우 교무회의 결정에는 이미 교수회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가 된다. 그러나 교무회의는 다수결로 결정되므로 교수회장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회장이 교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교수권리를 침해하는 자중수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마치 교수회에 큰 인심을 쓰듯 교수회장의 교무회의 참석을 권장할 수 있다. 교수회는 새로운 대학본부의 등장을 앞두고 이런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무회의를 주시하는 ‘관중’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교수회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회의석

상에서 우호적이기 보다는 돌출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교수회장의 배후에서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수회원들의 존재 자체가 회의를 끈끈하게 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회장의 존재 자체가 교무위원들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되어 교무위원들의 바람직한 회의결과 도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무회의에서 합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교수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면 교수회 측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 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사례에서 등장한 Boulwarism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의 교수회는 법정화 이후에 대학본부와의 현안을 다룸에 있어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¹⁾

■ 교수급여삭감에 따른 책임강의시수의 축소조정

반값 등록금 정책이 등장한 이후 우리 대학교의 졸업학점은 130학점 수준으로 낮춰졌다. 이는 대학의 교육품질이 과거의 전문대학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임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개설할 수 있는 강의시수는 절대적으로 감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임교수에게는 강의담당비율을 높이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정책은 거꾸로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증가하도록 압박하였다. 이런 모순된 대학정책들은 결국 학문후속세대들인 강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수들의 기성회수당은 박탈되고 재정·회계규정에 따라 교육·연구·봉사를 증빙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비지출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급여는 줄이고 일은 많이 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 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경영층은, 노사협상과정에서 경영층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시키고 협상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접근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경영층은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면밀히 계산한 다음 노사협약을 갱신할 때가 다가오자 이러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급여는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경영층이 발표한 수치는 아주 공정한 것이었고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경영층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격렬히 반발하였다. 중요한 것은 급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로 경영층의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상 거부, 임금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노동조합과의 의견교환 무시, 노동조합의 영향력 훼손 등이었다. 적대감과 언쟁을 줄이기 위해 합리에 바탕을 둔 경영층의 새로운 시도는 결과적으로 이 후 수년 동안 격렬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Boulwarism이라는 용어는 GE의 경영층 협상책임자였던 부회장 Lemuel R. Boulware의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애당초에 협상에서의 적대감과 다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격렬한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를 나타내는 현상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라면 응당 교수들에 대한 책임강의시수도 주 9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기존의 기성회수당을 재정·회계 상의 '경비'로 변경하여 감시·감독하는 비용은 기존의 기성회수당의 총합을 상회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기성회수당에 대한 정책은 원상·복구되어야 마땅하다.

이상 제한된 지면에 몇 가지 단상을 적어 보았다. 조만간 새로 출범할 대학본부와 함께 법정교수회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법정교수회의 역할과 위상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위기의 대학, 절처구생(絶處求生)하기

자치행정학과 신 승 준 교수

I. 대학의 자화상

대학은 전통적으로 상아탑의 기능을 통해 국가의 이성이요 사회의 양심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과 개방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바람이 학문자본주의(Academy Capitalism)라는 풍랑을 일으키며 대학을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이성과 진리는 외면당하거나 실용에 자리를 빼앗기고, 정의는 실리에 무릎을 꿇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은 이미 취업학원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회진출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학(學)과 습(習)을 멀리하기 까지 한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대학의 교수평가는 줄세우기와 서열화를 낳으면서 과잉경쟁이나 자포자기를 만들어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를 매몰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기업화되고, 교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육자가 아닌 셀러리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하다.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율이 9.4%로 전체 실업율(3.7%)의 2.5배에 달하고 있고, 강원도 청년실업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고인 18.8%를 기록하였다. 88만원세대, 3포·5포·7포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인구론, 캥거루족(대졸의 51%), 부장인턴, 호모인턴(Homo-Intern) 등의 자조적 표현처럼 대학생과 청년들의 희망이 행방불명되어 가고 있고, 취업에 포로가 된 대학은 스스로의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의 ‘대학진학=좋은 일자리’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물지마’식의 대학진학풍조가 줄어들면 진학자수가 입학정원에 크게 미달되고, 부실대학은 운영난으로 퇴출이 불가피해 지는 등 대형 쓰나미 같은 위기가 대학에 불어 닥칠 것이다.

최근 대학의 현실을 자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거나 변화의 당위성을 제시한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고 있다. 그중 1996년에 출간된 「폐허의 대학(The University in Ruins)」(Bill Readings, 책과함께)은 대학의 기업화문제를 다루면서 수월성경쟁에 매몰되어 이성과 학문의 발전이라는 고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대학을 폐허로 고집고 있다. 또한 2015년 출간된 「왜 대학은 사라지는가」(이현청, 카모마일북스)는 대학의 고전적 역할에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새로운 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이 향후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질 것이라거나, 2030년이 되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캠퍼스도 없어 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와 기능이 변해야 함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닥치고 있고 피하기 어려운 대학위기의 환경적 요인을 살펴 보겠지만, 대학의 대응은 손자병법의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도모하라’는 절처구생(絶處求生)의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II. 대학위기의 환경적 요인

1.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잠재적인 입학자원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학생은 올해 약 682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 6천여명이 감소(2.4%)하였다. 고교졸업자는 2013년 62만 7천여명에서 2018년 에는 54만 6천여명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2005년 출생자 435,724명이 고교를 졸업하는 때인 것이다. 그래서 2013년 대입정원 56만명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졸업자중 대학진학자(진학율)의 추이를 보면, 1990년 20만명(33.2%)에서 1996년 27만명(54.9%)으로, 그리고 2014년 36만명(70.8%,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입학정원 미달율은 27%로 4년제 대학 231개중 63개교에 달한다. 더욱 문제는 2015년 고교졸업자중 34.3%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하였듯이 갈수록 진학포기와 선취업 현상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학령인구가 1992년 205만명에서 2008년 124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의 진학률은 50%수준이다. 이미 2006년 입학정원 미달율은 40%로 4년제 사립대 556개중 222개교에 이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정원의 불가피한 감축은 바로 대학의 재정난으로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 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정부지원규모는 지나치게 낮다. 고등교육 공교육비중

에서 정부재원 비율(2006-2010)은 OECD국가가 평균 68.4%~72.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27.3%에 불과하여 수지불균형의 재정난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이 때문에 국공립대, 특히 강릉원주대와 같은 지역중심국립대학의 정부의존성은 높을 수 밖에 없고, 대학의 행·재정적 자율성은 난제가 되어 있다.

2. 디지털 원주민(신인류)이 몰려오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신인류는 이미 초중고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기관중심과 장소중심의 오프라인 교육보다 상시적인 온라인 교육에 친숙한 세대들이다. 이미 교육부는 2011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디지털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인터넷강의, 인터넷서핑을 통한 수행평가과제 등은 스마트교육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던 터이다. '게임방식의 공부' 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육아시장까지 잠식하고 있고, 이같은 교육모델은 이미 영유아 홈스쿨링(home schooling)의 확대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교육의 특징은 소요시간이 매우 짧고 사이클이 빠르다는 것이다. 게임을 통해 분·초단위의 의사결정에 익숙한 디지털원주민이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과연 15주 정규학기제의 운용이 적절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신인류의 등장은 대학의 교수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업데이트되는 지식은 교수의 지식과 강의콘텐츠를 낡은 것이나 무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디지털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지식을 엮어내는 논리와 문제해결의 경험제공자, 즉 코치(coach)나 멘토(mentor)의 역할로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원격교육이 대체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는 이미 전용플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짧은 동영상 강의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시험·과제제출 등도 가능한 교육방법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 미국의 스탠퍼드대와 예일대 등 총 114개 기관의 강좌를 운영하는 코세라(Coursera), 하버드대와 MIT 등 64개 대학의 강좌를 보유한 에드엑스(edX), 영국의 퓨처런(FutureLearn), 프랑스의 펀(FUN), 독일의 아이버시티

(Iversity), 중국의 쉐탕엑스(XuetangX), 일본의 갓코(Gacco) 등이 세계적인 고등교육 개방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원격교육은 서울대와 KAIST를 선두로 하여 연세대·고려대·숙명여대·성균관대·경희대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도 2015년 K-MOOC 시범사업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20개 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까지 500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수법과 교육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15주(semester system)보다 짧은 4-8주(term system)의 원격교육과 유동적인 학기제를 등장시킬 수 있다. 기존 15주 학기제가 짧은 지식수명과 새로운 학습수요에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개강의가 확대되면, 대학은 소속교수에게 강의를 담당시킬지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이 개설하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강의실과 지식전달자인 교수에 의존해 온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교수방법이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의미다.

교수들의 수와 일자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3-2023)은 교수수가 2013년 7만3400명에서 2023년에는 6만3200명으로 감소(13.9%)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직이 연평균 1.5%씩 줄어들 것이라 통계수치다. MOOC같은 온라인 원격교육이 교수들의 일자리는 물론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학의 형태도 학령인구의 감소와 원격교육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종합대학체제에서 소규모 단과대학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충격과 대응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4. 대학이 권력에 포획되어 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규제)과 신자유주의 트렌드는 대학의 존재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행정지침 등을 무기로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사립대학을 소유·경영하는 자본권력 역시 수월성, 경쟁력, 효율성, 소비자주의 등과 같은 과도한 기업논리를 앞세워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결국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포획(capture)된 대학은 교육이념, 자율,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비판과 미래지향적 담론을 외면한 채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있다. 다양성과 창조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21세기에 그 중추적 플랫폼인 대학을 권력과 권한으로 과도하게 관리·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III. 질처 구생의 방향

1. 적시성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20세기 후기산업사회까지는 산업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비교적 가능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와 스마트사회에서는 산업수요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투자하는 동안 산업수요가 변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광속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적 대학으로서 교육의 탄력성과 적시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형태를 '보이는 교육'에서 '보이지 않는 교육' (invisible education)으로 확대·전환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MOOC교육이나 국내의 K-MOOC와 같은 교육 방식이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도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형적·순차적인 편성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현재도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선택화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1~4학년간의 경계는 물론 고교와 학부 그리고 대학원의 경계를 넘어서 수 강할 수도 있고, 국내학생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과정(just-in-case)이 현장중심형(just-in-time)이나 맞춤형(just-for-you)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강릉원주대도 현행의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2. 온라인 원격교육시스템 확대와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원주민의 성향과 욕구에 적합한 원격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대·구축해야 한다. 대학이 원격교육에 대비하지 않으면 해외 원격교육콘텐츠가 우리 교육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물론 모든 학습이 온라인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나 액션러닝(action learning), 그리고 '거꾸로학습' (flipped learning)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정보홍수시대와 스마트시대에 대학은 단순지식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지식활용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스마트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디지털세대는 오프라인 교재나 문헌보다 인터넷검색에 익숙하지만, 글쓰기와 오프라인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력과 소통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강릉원주대도 경직되고 관료적인 특성을 탈피하여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

Multi Online Open Course)와 같은 온라인 교육을 적극 도입하여 다국적 학생들도 흡수하고, 산학협력 수익형 대학과 같은 특화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또한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릉원주대도 학생자원의 해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자매대학과의 교류강화는 물론 교육의 영토를 환동해권과 동남아시아권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아세안의 정서와 수준에 적합한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은 이미 정부가 2025년까지 총 300만명의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의 고등교육수요를 확보하려는 계획에도 상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온라인 고등교육정책과는 별개로 대학별로는 물론 타 대학들과 공동의 통합플랫폼 방식으로 해외 고등교육수요를 유인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밀착형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

고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경쟁과 성과지향성, 그리고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집중)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을 대한민국 내부식민지로 고착되게 하고, 지방대학이 교육의 본분을 지키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대학의 유형은 크게 세계적인 Major급 대학, 국내의 Minor대학 그리고 Local대학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대학은 교육의 본질을 차치하더라도 고용, 소득(소비), 문화,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에 기여한다. 그러나 특히 강릉원주대와 같은 지방대학은 지금부터 더욱 지역밀착형으로 Good Service와 Best Solution을 제공하면서 지역과 강한 상생노력을 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지방대학육성 5개년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강릉원주대도 강원도와 시·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일자리창출과 산학협력을 공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관광·환경·지리·교육 등을 망라하는 지역학(강릉학, 원주학)을 통합 또는 융합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지역출신 대학생은 물론 외지 대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강릉과 원주가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서 교육협업의 사례는 경일대와 경산시가 함께 ‘경산학의 이해’(2015년 1학기)과목을 개설하고, 경산시가 감사료와 답사교통편을 지원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천안지역 7개 대학과 천안발전연구원도 이미 수년전부터 협동과목으로 ‘천안학’을 개설하고 있다.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밀착형 교육과정과 협업구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학내에 (가칭) ‘미

래포럼'을 운영하여 교수자들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통찰, 학문간 융합적 이해,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등이 가능하도록 벽을 넘는 개방적 플랫폼(인식공동체, epistemological community)을 가동하여 학내 구성원간은 물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4.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총인구중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고령화는 많은 지역에서 이미 초고령화에 돌입하였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55~1963년 출생의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노인층을 비롯한 성인인구가 앞으로 주된 교육소비자 집단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이들 노인인구의 학습수요와 삶의 질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성인평생단과대학)'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향후 학령기 입학생모집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변화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의 입학자원이 급감하게 되고, 질적 수요가 다양해지는 디지털 원주민이 대학과 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이 구축·확산되면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다. 직업의 주기가 짧아지는 대신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생애학습이 가속화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학은 기존과는 다른 창의성(creativity), 융복합(convergence), 사이버(cyber), 핵심가치(core),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humanware)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기초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고등 교육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당위를 지님과 동시에 세계화·개방화·경쟁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 되었다. 결국 대학은 자연스럽게 순연하는 변화(change)가 아니라 강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투입하는 혁신(innovation)으로 맞서야 경쟁력과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자료: 한국대학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신 / 임 / 교 / 수 2015. 3. ~ 2015. 11.



성명 강상준
 소속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메일 skang8@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206
 학력
 학사 : 경희대학교 조경학 학사
 석사1 : 미) Texas A&M University, 도시계획학 석사
 석사2 : 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조경학 석사
 박사 : 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경력
 경기연구원(Gyeonggi Research Institute), 연구위원 (2008.8-2015.2)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 (2012.7-2015.2)



성명 구문규
 소속 중어중문학과
 메일 luxun21@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54
 학력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중국사회과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경력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베이징외국어대학교 파견교수
 신성대학교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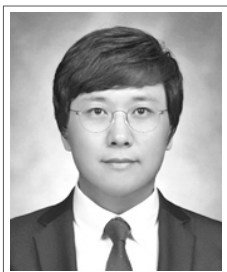
성명 김근면
 소속 간호학과
 메일 gmkim@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760-8643
 학력
 고려대학교 간호학사 / 고려대학교 간호학 석사/ 고려대학교 간호학박사
 경력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성명 김이경
 소속 해양생물공학과
 메일 yikyung1118@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409
 학력
 부경대학교 어병학과 (이학사)
 동경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석사)
 동경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박사)
 경력
 동경대학교 외국인특별연구원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부경대학교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전임연구원



성명 김인교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
 메일 inkim@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760-8257
 학력
 한양대 전자통신 (학사) 피츠버그 대학 마케팅 MBA 과정수료
 경력
 삼성전자 그룹장
 DELL COMPUTER Korea 사장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성명 박병선
 소속 복지학과
 메일 bspark@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760-8863
 학력
 학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력
 1. 대구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2.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3.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성명 박성희

소속 해양식품공학과

메일 shpark@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347

학력

박사 2012년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Major in Food Engineering)

석사 2007년 축산식품생물공학, 건국대학교

학사 2005년 축산식품생명과학부, 건국대학교

경력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March 2015–August 2015, Food Engineering Lab., Department of Bioindustrial Technologie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Post Doctorate Fellow

March 2014–Feb 2015, Food Processing Lab., Department of Human Nutrition, Food and Animal Scienc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Hawaii, USA

□ Postdoctoral Research Scientist

April 2012–February 2014, Food Safety Engineering Lab.,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USA



성명 박현제

소속 해양자원육성학과

메일 phj13579@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1680

학력

학사: 1999.3–2006.2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사: 2006.3–2008.2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사: 2011.3–2013.8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경력

2013.9–2014.8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박사후연구원

2014.9–2015.8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박사후연구원



성명 이권호

소속 대기환경과학과

메일 khlee@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319

학력

학사 : 고려대학교

석사 :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 광주과학기술원

경력

2009.9 ~ 2015.2 조교수, 경일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2006.8 ~2009.8 Research Associate, The Earth System Science

Interdisciplinary Center (ESSIC),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USA

2005.9 ~2006.8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모니터링 신기술 연구센터(ADEMRC),



성명 정재호

소속 생물학과

메일 jhjung@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312

학력

2000.03-2007.02 인하대 생명과학과 학사

2007.03-2009.02 인하대 생명과학과 석사

2009.03-2013.02 인하대 생명과학과 박사

경력

2013.07-2014.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15.01-2015.08 극지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성명 허윤희

소속 치의학과

메일 vino@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761

학력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사

강릉원주대 석사(치과보철학전공)

강릉원주대 박사(치과보철학전공)

경력

치과보철과 전문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사

원광대학교산본치과병원 임상교수

◆ 김지혜 (다문화학과)

▶ 정 / 년 / 퇴 / 임 / 교 / 수 2015. 3. ~ 2015. 11.



◆ 김승민 교수 (음악과)

◆ 학력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미국 브루클린 음악원 졸업
-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

◆ 주요 경력 및 활동

- 1976. 1월~1980. 7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재직
- 1980. 8월~1986. 1월 KBS교향악단 재직
- 1990. 4월~1992. 9월 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겸 지휘자
- 1997. 7월~2000.12월 원주시립교향악단 악장 및 운영위원
- 1992.10월~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음악과 교수
- 2001. 3월~2003. 8월 원주대학 음악과 학과장
- 2001. 3월~2014. 3월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원주분관장
- 강릉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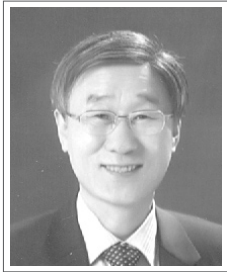
◆ 학술활동

· 연주활동

- 1976. ~1992 16년간 교향악단 연주자로 연주활동
- 1988. 미국 카네기홀 연주(협연)
- 1991. 전주시립교향악단 지휘
- 1994. 치악첼버오케스트라 창단 연주
- 1995. 백령트리오(강원대 교수와 연대)창단 연주
- 2003. 원주시립 교향악단과 협연
- 독주회(18회)와 실내악 연주 활동

◆ 학회활동

- 1994. 핀란드 쿠모 음악제 참가
- 1995. 미국 아스펜 음악제 참가
- 1996.~1997. 독일 쿨른베르그 음악제 참가



◆ **박광하 교수 (생명화학공학과)**

◆ **학력**

-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학사)
- 연세대학교 화학과 졸업(수질환경, 석사)
- 경희대학교 화학과 졸업(수질환경, 박사)

◆ **주요 경력**

- 강릉대 교무처장(1991.3.~1993.2.),
- 강릉대 환경과학연구소장(1997.3.~1999.2.)
- 강릉대 환경문제연구소 소장(2001.9.1.-2003. 8.31.)
- 한국공업화학회 부회장(2005.1-2006.12)
- 한국분석과학회 부회장(2007.1.~2008.12)
-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2012.2.~2014.1.)
- 전국 국공립대학 산업대학원장협의회 부회장(2013.2.~2014.1.)

◆ **주요 활동**

-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학술위원(1986-1998)
- 강원도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1994.9-2004.8)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1996.5-1998.4)
-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1996.9~1998.8.)
- 용평스키장 확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위원(1996.10-1998.9)
- 환경부 자문위원(1996.12.~2000.11.)
- 한국공업화학회 강원지부장(2000.4.~2002.3.)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자문위원(2002.1-2003.12.31)
- 한국자원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홀닥터(2002.10-2015.2.)
- 재생공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 심사위원(2002.7-2004.6)
- 한국공업화학회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위원장(2003.1.~2004.12.)
- 양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2003.3-2005.2)
- 한국공업화학회 감사(2005.1-2006.12),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지하수관리위원(2007.2.~2009.1.)
- 원주지방환경청 샘플개발 환경영향심사위원(2007.5-2009.4)
- 전국과학전람회 작품심사협의회 심사위원(2007.8)
-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2009.2-2011.1)
- 대학환경안전협의회 창립이사(1998.2.~2000.3.)
- 강원도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2008.3-2010.2)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2009.4.-2011.3.)
- 강원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2009.6-2011.5)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환경보전협의회 위원(2011.11-2014.10)



◆ 정기성 교수 (경영학과)

◆ 학력

-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주요 경력

- 1973.2 - 1981.3 중소기업은행 업무부 사무개선과 (기획), 전자계산실(계리업무), 안양지점(예금, 대부, 관리, 서무 주임), 보광동지점 대리, 인사부 조사역, UNION BANK 파견, 국제영업부 대리
- 1973.6 - 1976.1 육군복무 (병장제대)
- 1980 숭실대학교 강사
- 1981.4 - 2015.8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85.4 - 1986.4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 1985.4 - 1987.4 기획위원회 위원
- 1987.11- 1988.10 The Kangnung Herald 제 4대 지도교수
- 1989.8 - 1991. 8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소장
- 1991.8 - 1998. 8 강릉대학교 신문사 제 10 대 주간교수
- 1992.3 - 1994. 2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대학원장
- 1994.4.8. 미국 아칸사스주· 친 선 대사, 미국 아칸사스주 리틀록시 명예시민
- 1994.7 - 1995 .6 국제 와이즈멘 한국중부지구 강원지방 지방장
- 1995.12- 1997.12 사회과학대학 학장(직선 학장)
- 1996.3 - 1997.12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대학원장
- 1997.7 - 1998.6 국제 와이즈멘 한국중부지구 및 아시아지구 임원
- 1990 - 현재 강릉 YMCA 이사 및 이사장 등 사회활동 다수
- 1998.4.15.-1999.4.18. 근로복지공단 생업 영업자금 심사위원
- 1999.1.12.-2000.1.21. 근로복지공단 실직 여성가장 자영, 영업지원사업 선정위원
- 2000.7.1-2001.6.31. 국제와이즈멘 한국중부지구 차기총재
- 1999.10.16-2000.1.25. 반부패 국민연대 강릉지부 공동대표
- 1995.6.1-1998.5.31. 보호선도위원 (법무부장관 제 228호)
- 1997.5.1-2000 YMCA 강릉 청소년 종합상담실 상담위원장
강릉시 새천년 위원회
- 2002 - 2003 국제 와이즈멘 한국중부지구 총재
- 2003 - 2004 국제 와이즈멘 아시아 지역 재무
- 2002 - 2005 국제 와이즈멘 아시아 대회준비위원장
- 2003 - 현재 중국 산둥성 창의시 시장 행정 고문

- 2006 - 2009 국제 와이즈멘 국제의원 (ICM)
- 2005 - 현재 한국 서민연합회 공동대표
- 2001 -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문이사
- 2007. 7 -2008. 5 강릉대학교 사회봉사센터소장
- 2007 - 2013. 10 강릉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감사
- 2008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강원포럼
- 2008 - 2010.5 강릉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장
- 2009 - 2010 국제 와이즈멘 아시아 사무총장
- 2011 -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동문회 부회장
- 2011.3 - 2012. 8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 2012.1 - 2012.12 한국국제경영관리 회장
- 2010.5 - 현재 포럼 강원 비전 공동 대표
- 2012 국가미래연구원 강원본부장

◆ 주요 활동

- 한국경영학회 강원지회 회장직무대리 (92. 4.24 - 93.11.26)
- 한국경영학회 강원지회 회장 (93.11.27 - 96. 1.18)
- 한국경영학회 회원 이사, 운영위원(영구회원)
-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원 이사(영구회원)
- 경영사학회 부회장
-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 한국선물학회, 한국금융학회 회원
- 한국정책학회 회원
-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회원
- ICSB-KOREA(중소기업국제협의회 한국위원회) 교수회원
- 국제경영학회 회원, 이사, 부회장(영구회원)
- 국제경영관리학회 회원, 이사, 부회장, 회장(영구회원)



◆ **최기열 교수 (치의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 **주요 경력**

- 인공타액 조건에 따른 치과용 티타늄의 갈바니부식 특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9)
- 치과용 티타늄 합금의 조성이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9)
- 임플란트용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양극 산화 특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6)
- 치과용 티타늄의 부식 특성에 대한 불소 이온의 영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5)
- 치과용 니켈-티타늄 합금의 갈바닉 부식.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4)
- 타액 조건에 따른 치과용 니켈-티타늄 합금의 부식 특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004)
- 인공 체액 조건에서 임플란트용 티타늄 소재의 부식 특성. 한국표면공학학회지 (2004)

◆ **주요 활동**

- 학회활동
- 대한치과기재학회 (이사, 부회장, 회장, 감사, 고문)
- 대한의용생체공학회



◆ **최정숙 교수 (간호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졸업(학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졸업(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박사)

◆ **주요 경력**

- 1978. 5월~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1982. 3월~1984. 2월 원주대학 간호학과장
- 1987. 3월~1987. 10월 원주대학 간호학과장
- 1991. 3월~1993. 2월 원주대학 도서관장
- 1993. 3월~1995. 2월 원주대학 실습과장

◆ **주요 활동**

- 간호사와 입원 환자가 지각한 임종기 치료선호도,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년 12월
- 연령에 따른 도시 지역 성인의 삶의 질,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2년 12월
- 건강관리역량 도구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Scale: PCHC)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2년 8월
- Self-Help Education as Outreach Program for Osteoarthritis Patients in Rural Korea,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1년 11월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산후우울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1년 3월
- 농촌지역 관절염대상자를 위한 타이치운동 프로그램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0년 3월
- 지지 전화를 이용한 자조타이치 프로그램 적용 효과,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9년 11월
- 여성 독거노인의 삶(The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Korean Soc Nursing Science 제38권 제5호, 2008년 10월 외 다수의 논문 발표
- 저서: 정신간호총론 외 7편

◆ **이복환 교수 (체육학과)**

◆ **김일회 교수 (생물학과)**

◆ **강숙녀 교수 (패션디자인학과)**

◆ **이혜경 교수 (영어영문학과)**

교/수/동/정

(2014. 11. ~ 현재)

- ◎ 임영문 교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에 선임
- ◎ 박준철·엄완섭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 ◎ 산학협력단장 신일식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 ◎ 조태동 교수 한국환경과학회 회장에 선임
- ◎ 법학과 고민수 교수, 신진 학술상
- ◎ 김성곤 교수팀, 세계최초 누에고치를 이용한 치과용 차폐막 개발
- ◎ 김봉석 교수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표창
- ◎ 전기공학과 박철원교수팀 논문상 수상
- ◎ 최원열 교수 으뜸 중소기업상 수상
- ◎ 최효 명예교수, 국제해양위원회 위원에 임명
- ◎ 유구종 교수,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
- ◎ 법학과 오경식 교수 국회 공로패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논문 대상
- ◎ 치위생학과 강명신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에 임명
- ◎ 화학신소재학과 백경구 교수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학술상 수상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팀 논문상
- ◎ 산업경영공학과 김성준 교수 우수 논문상
- ◎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에 오경식 교수
- ◎ 해양분자생명공학과 김길중 교수팀, 손영창 교수팀 우수 포스터상 수상
- ◎ 정보통계학과 정동빈 교수 우수 논문상
- ◎ 장정룡 교수 ‘울곡 선생 해몽가’ 필사본 발견 공개
- ◎ 중어중문학과 김만원 교수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엄흥식, 김성곤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 법학과 오경식 교수와 자치행정 권자경 교수 민주평화통일 중앙 상임위원과 자문위원에 임명
- ◎ 박광하 명예교수 저서, 세종 우수 도서에 선정

- ◎ 변희국 교수팀, 홍어 껍질에서 치매 예방 소재 발견
- ◎ 장정룡 교수, 日교사 제작 '이울곡' 선양 악보 발견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논문상 수상
- ◎ 법학과 오경식 교수, 법무자문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
- ◎ 이상민 교수, 사조수산대상 학술상
- ◎ 이근택 교수, (사)한국포장학회 학술 대상
- ◎ 김형근 교수, (사) 한국조류학회 15대 학회장에 선출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 ◎ 장정룡 교수, 고성서 김삿갓 한시 6수 발견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우수 논문상
- ◎ 전자공학과 강문식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
- ◎ 국제통상학과 여인만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교/수/회/활/동

(2014. 11. ~ 현재)

1. 평의원회 개최

- 1) 제18-15차 평의원회 (2015.1.12)
안건 1. 총장선출 규정 개정(안) 논의

- 2) 제18-16차 평의원회 (2015.2.3)
안건 1. 총장선출 규정 개정(안) 논의
2. 김근중교수의 소송비용 일부지원 건

- 3) 제18-17차 평의원회 (2015.3.18)
안건 1.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2. 교수회 학칙화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취합
3.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건

- 4) 제18-18차 평의원회 (2015.4.9)
안건 1. 교수회·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건
2. 재정위원회 건

- 5) 제18-19차 긴급평의원회 (2015.4.16)
안건 1.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 6) 제18-20차 평의원회 (2015.6.11)
안건 1. 임세복교수 서명 운동 건
2. 총장선출규정
3. 학칙화규정
보고 1. 도내통합대학실태조사위원회 보고 건

7) 제18-21차 평의원회 (2015.7.1)

안건 1. 총장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건

2. 임세복교수 서명 건

보고 1. 패션디자인학과 문제

2. 교수회 학칙화 건

3. 재정위원회 건

8) 제18-22차 긴급평의원회 (2015.7.21)

안건 1.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9) 제18-23차 평의원회 (2015.8.19)

안건 1. 교수회장직에 대한 건

보고 1. 임세복 교수 건 : 서명운동

2. 총장선출과정을 현 교수회가 주관하는지 또는 새로운 교수회가 하는지 본부에 공식 질의

- 관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에 교수회 임원진의 포함여부가 불투명

- 외부위원 추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한 시간 부족 등

10) 제1차 평의원회 (2015.9.23)

안건 1. 신입회장단 인사 및 감사 선임

2.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3. 총장 선출방식 및 대학자치 관련 설문조사 건

4.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

보고 1. 교수회 평의원 명단 보고

2. 사무처장 및 정책국장 선임 건

3. 예산 현황(현재 우리 교수회 예산 잔액) 보고

11) 제2차 평의원회 (2015.10.13)

안건 1. 교수회 감사 임명 건

2. 교수회장 및 부회장 당선증 교부

3. 2015년 제18대 교수회 단과대학 경상보조비 잔여액 회수 및 배정 건

4. 교수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 건

- 학외위원 추천에 관한 경과보고

- 학외위원 선발기준(안) 재확인 및 인준

- 5. 대학본부 심의 의뢰 건 심의 범위와 절차
- 6.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 및 위원장 선출
- 보고 1. 2015년 교수회 대학회계 예산(안)보고

12) 제3차 평의원회 (2015.11.18)

- 안건 1. 교수회비 미납자의 교수회 회원 자격에 대한 논의
- 2. 평의원회 불참자에 대한 조처 및 규정개정
- 3. 교수회 심의 안건에 관한 심의 절차 논의
- 4. 근조회환비 지출항목 변경(교수회비→교수친목회비)에 관한 논의
- 5. 총장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한 협의
- 보고 1. 제18대 교수회 단과대학 경상보조비 정산 및 반납 현황
- 2. 교수회보 원고 모집 건(12/5까지)

13) 제4차 평의원회 (2015.12.16)

- 안건 1. 예산심의건
- 2. 교수회 정책개발 과제 추진건
- 3. 교수회 회비와 교수친목회비의 금액 조정
- 4. 교수회 회원 자격 규정 개정건
- 5. 평의원 출석과 관련한 자격 기준 개정건
- 보고 1. 교수회 추경예산(안) 건
- 2. 총장후보추천 진행 상황 보고

2. 국교련, 지교련 출장

1) 2014년도 제5차 국교련 임시총회 (12.12 부경대학교)

- 안건 1. 현안과제 대응방안(성과연봉제, 총장선출제, 대학구조개혁, 기성회비문제)
- 2. 회장단회의 확대를 위한 회칙개정
- 3. 기타

참석 : 회장 정강연

2) 2015년도 제37차 지교련 회의 (1.22~1.23 강릉원주대학교)

- 안건 1. 기성회 해산 관련 대체법안 현황 및 대책
- 2. 교수회(평의원회)의 심의 활동

3. 국교련 회장단 확대
4. 총장 선출 상황
5.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현황 및 추후 운동
6. 지교련 차기 회장교 추천
7. 기타 안건

참석 : 회장 정강연, 부회장 박철원, 사무처장 이준동, 사무처장 이영규

3) 2015년도 국교련 총회 (2.13 국회도서관)

- 안건 1. 상임회장, 공동회장, 감사 선출과 상임고문 위촉의 건
 2. 현안과제 대응방안(성과연봉제, 총장선출제, 대학구조개혁, 기성회비문제)
 3. 기타

참석 : 부회장 박철원, 사무처장 이영규

4) 2015년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 (5.22 서울시립대학교)

- 안건 1. 재정회계법 대응방안
 2. 국교련 조직변경 방안
 3.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4. 회비 조정 방안
 5. 기타

참석 : 회장 정강연, 사무처장 이준동

5) 2015년도 제5차 국교련 임시총회 (10.23 한밭대학교)

- 안건 1. 성금 잔액에 대한 처리 방안
 2. 회비 미납 회원교와 회의 불참 회원교에 대한 논의
 3. 비대위 후속 조직에 대한 국교련의 참석 여부

참석 : 부회장 전병국

6) 2015년도 제40차 지교련 회의 (10.30 한국교통대학교)

- 안건 1. '누적없는 성과급적 연봉제 전환' 을 위한 대응활동에 대한 논의
 2. 총장직선제의 관철 등 총장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3. 국립대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논의
 4. 기타 회원교 현안 토의

참석 : 부회장 이영규

3. 주요 활동

- 1)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위원회 정책연구(2014.11.~2015.6.)
 - 위원장 : 이영규
 - 위원 : 이준동, 이상훈, 윤정로, 강호진, 김만재, 김진구, 홍순조

- 2) 교수회·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2015.2.13.)
 - 전기공학과 박철원, 세라믹공학과 김세훈, 패션디자인학과 우현리, 일본학과 한기련

- 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정원 배정원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2015.4.20.)
 - 본부 입법예고안은 기간단축의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학과평가와 교수정원 배정은 연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건의

- 4) 강릉원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2015.6.2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비 고
	수 정 안	수 정 사유	
「강릉원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당연직 위원 7명중 대학원장과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교수회 임원 중 부회장 1명, 사무처장 1명으로 대체하여 구성하고, 나머지 5명중 1명은 원주 캠퍼스의 부총장을 임명하여 원주캠퍼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직 위원은 교원 4명(원주캠퍼스 1명 포함), 직원 2명, 학생 2명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중 대학원장과 미래정책연구원장은 대학 재정 회계와는 관련성이 적고, 원주캠퍼스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 2. 교수회가 학칙화되면 대학 내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구인데 당연직 위원으로 학칙화된 교수회의 임원이 배제되었다. 3. 일반직위원 중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의 수가 너무 적다.	1. 군산대학교: 당연직 7명, 일반직8명으로 하고, 당연직에 교수회 부회장 포함하며, 일반직에 교수3명, 직원2명, 학생2명, 외부1명으로 함. 2. 금오공대: 당연직에 교수회 부회장 포함하며, 일반직에 교수3명 중 2명은 교수회추천이고 1명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총장이 임명하기로 함.

제정안	검토의견		비고
	수정안	수정사유	
	3. 제 4조④항은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 직위원 교원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수정한다.	4. 외부인원 2명은 총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	3. 부경대: 총장과 평의회 의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전제로 재정위원회는 6:9(교수 3, 직원2, 학생2, 외부 2)로 하기로 합의하고, 외부위원은 협의하고, 위원장은 평의회의장이 하기로 함.

5) 교수회 법정화 (2015.8.27.)

- 교수회 운영규정 제정(제1540호)
- 교수평의회회 규정 제정(제1541호)

6) 교수회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2015.9.)

- 교수회 임원선거
- 위원장 : 박덕영
 위원 : 이상훈, 권자경, 정명재, 김태경, 박래정, 우현리, 서길희, 이태연

7) 2015년 교수회 출범(2015.9.18.)

- 회장 : 이근택, 부회장(강릉캠퍼스) : 이영규, 부회장(원주캠퍼스) : 전병국 당선
- 사무처장 : 김태완, 정책국장 : 박준철 임명

8)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학외위원 추천 (2015.10.14.)

9) 임세복교수 서명운동 (2015.7.)

- 대법원 상고시 도움이 되도록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의견 전달

10) 종장선출방식 및 대학자치관련 설문조사 (2015.10.)

일정 : 2015.10.5.(월) ~ 2015. 10.7.(수)

결과 : 응답률 57.4%

11) 국회청원 서명운동 (2015.10.)

- 누적 없는 성과급적 연봉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국회청원 서명운동 진행

일정 : 2015.10.1.(목) ~ 2015.10.7.(수)

결과 : 참여율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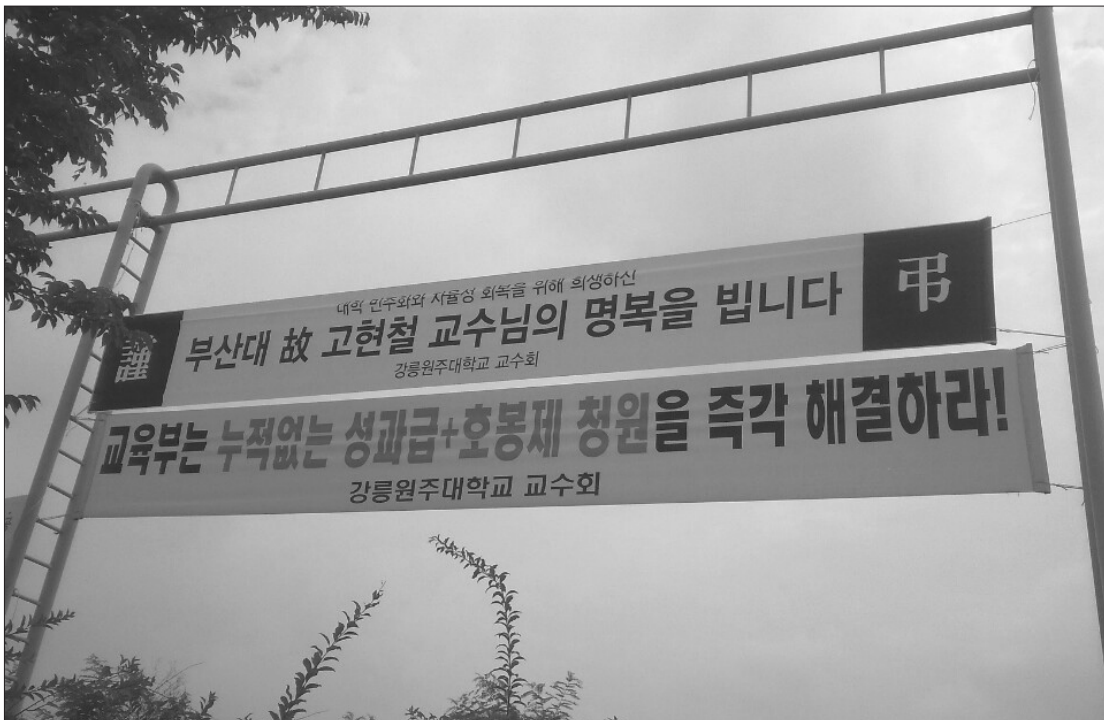
12) 교수회 심의 절차 (2015.10.15)

- 교무회에서 심의를 완료 후 교수회에 최종 심의 의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13) 지교련 회의 개최



14)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 추모현수막 설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규칙 제1540호, 제정 2015. 8.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임원과 감사,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재적 전임교원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교무회, 교수평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1.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 제1호의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대의기구)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교수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성)

- ①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수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캠퍼스 별 각 1인), 사무처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둔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로 하며,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본교에 재직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④ 교무회구성원은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본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본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회구성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제한한다.
- ④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교수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만료 30일전 차기 임원의 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해 각 단과대학교수회의 수석평의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를 두어 선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 ① 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2인을 두며 교수평의원이 아닌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과 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위촉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교수회와 교수평의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정책국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 ①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말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학칙 제101조 제4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며, 긴급발의안건은 의결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파견, 휴직, 출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은 의결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결과를 교내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사무직원) 교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제14조(재정)

-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교수회 임원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교수평의원들의 교수평의원회 참석실비(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규칙 제1540호,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교수회의 최초 임원 선출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평의원회가 관리한다.

교수회 평의원 명단

2015.12.15. 현재

구 분	성 명	학 과	연 락 처	임 기
회장	이근택	식품가공유통학과	leekt@gwnu.ac.kr	2017.09.17
부회장(강릉)	이영규	법학과	jieahn@gwnu.ac.kr	2017.09.17
부회장(원주)	전병국	정보기술공학과	jeonbk@gwnu.ac.kr	2017.09.17
인문대학(4)	이상훈(수석)	독어독문학과	lsh@gwnu.ac.kr	2017.09.17
	장정룡	국어국문학과	jjy1@gwnu.ac.kr	2017.09.17
	최일의	중어중문학과	cie@gwnu.ac.kr	2017.09.17
	이호근	철학과	phklee@gwnu.ac.kr	2017.09.17
사회과학대학(4)	강영갑(수석)	경제학과	kyp0103@gwnu.ac.kr	2017.09.17
	김태완	회계학과	kimtw@gwnu.ac.kr	2017.09.17
	권자경	자치행정학과	jjkwon@gwnu.ac.kr	2017.09.17
	강승호	국제통상학과	kang@gwnu.ac.kr	2017.09.17
자연과학대학(4)	정일웅(수석)	대기환경과학과	iuchung@gwnu.ac.kr	2017.09.17
	윤재선	물리학과	jsyon@gwnu.ac.kr	2017.09.17
	최석정	화학신소재학과	sjchoi@gwnu.ac.kr	2017.09.17
	최충현	물리학과	chchoi@gwnu.ac.kr	2017.09.17
생명과학대학(4)	김태경(수석)	환경조경학과	tkkim@gwnu.ac.kr	2017.09.17
	유병진	식품영양학과	ybjin@gwnu.ac.kr	2017.09.17
	주성수	해양분자생명공학과	ssj66@gwnu.ac.kr	2017.09.17
	이종일	해양자원육성학과	leeci@gwnu.ac.kr	2017.09.17
공과대학(4)	하태권	신소재금속공학과	tkha@gwnu.ac.kr	2017.09.17
	김세훈	세라믹신소재공학과	vitamineshkim@gmail.com	2017.09.17
	심상연	생명화학공학과	syshim@gwnu.ac.kr	2017.09.17
	박래정(수석)	전자공학과	ljpark@gwnu.ac.kr	2017.09.17
예술체육대학(3)	정우진	체육학과	woojin@gwnu.ac.kr	2017.09.17
	우현리(수석)	패션디자인학과	woo405@gwnu.ac.kr	2017.09.17
	신승철	미술학과	hy0404@gwnu.ac.kr	2017.09.17
치과대학(4)	박덕영(수석)	치의학과	jguitar@gwnu.ac.kr	2017.09.17
	박순호	치의학과	spark9@gwnu.ac.kr	2017.09.17
	최항문	치의학과	imagchoi@gwnu.ac.kr	2017.09.17
	유기연	치의학과	kyyoo@gwnu.ac.kr	2017.09.17
보건복지대학(3)	임선옥	간호학과	limsunok@gwnu.ac.kr	2017.09.17
	성경숙(수석)	간호학과	sungks@gwnu.ac.kr	2017.09.17
	한종화	유아교육과	jhhan@gwnu.ac.kr	2017.09.17
과학기술대학(5)	박준철	산업정보경영공학과	jcking@gwnu.ac.kr	2017.09.17
	신준	기계의용공학전공	jshin@gwnu.ac.kr	2017.09.17
	양길모(수석)	멀티미디어공학과	gmyang@gwnu.ac.kr	2017.09.17
	이강만	컴퓨터공학과	gangman@gwnu.ac.kr	2017.09.17
	최덕기	정밀기계공학전공	choidk@gwnu.ac.kr	2017.09.17